

활짝 핀 벚꽃이 떨어질 때 즈음이면,
밝은 미소를 되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20년간, 일곱 번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모든 선거는 힘겨운 경쟁이지만 저는 늘 즐거웠습니다.
여의도에서의 국회의원 생활,
집권여당 사무총장으로서의 당직자 생활,
부산시 전체를 챙겨야 하는 시장 생활을 하다보면
주민 여러분과 얼굴을 맞댈 기회에
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선거는 다른 모든 역할을 제쳐두고
'신나게' 주민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속이 뽕 풀리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시작하며,
사무실 외벽에 내걸 현수막 사진을 고르는데
왜 그리 심각하고 어두운 표정의 사진들에만
손이 가는 것인지?
저는 지금껏 늘 밝고 편안한 사진으로
모든 선거를 치러 왔었는데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심각하고 어두운 표정이 요즘 저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정권을 심판하고 보수를 바로 세우라'
요구하는 제 주변 모든 주민들의 표정이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우울한 '문재인 우울증',
갑자기 화가 치미는 '문재인 핏병'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활짝 핀 벚꽃이 떨어질 때 즈음이면,
제 표정이, 여러분의 표정이 밝아질 수 있겠지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뭉치고 바꾸고 문재인심판 하는데 동참해 주시면,
우리 모두 밝은 미소를 되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서병수가 걸어온 길

- 전, 부산광역시장
- 전, 4선 국회의원
-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경남고등학교 졸업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노던일리노이대학교 박사과정 졸업
(1983.9~1987.12 경제학박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113, 2층
(초읍동, 소천빌딩)

T. 051-819-2500

[blog](#) suhbs8680 [f](#) suhbyungsoo [ig](#) belief_sbs

사전투표일 4월 10일(금) ~ 11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권 연령 : 만 18세 이상 (2002.4.16. 이전 출생자)



문재인
심판

2 서병수

대한민국의 심장
부산의 중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산진구(갑) 책자형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산진구갑선거구 |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2	미래통합당	서 병 수	남	1952. 1. 9. (68세)	정당인	노던일리노이대학교 박사과정 졸업 (1983.9-1987.12 경제학박사)	(전)부산광역시장 (전)4선 국회의원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장남	차남		
4,680,671	3,839,358	799,422	고지거부	고지거부	41,891	공군병장 (만기)	-장남: 육군병장(만기) -차남: 육군병장(만기)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후보자 전과기록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770,533	없음	없음	없음
후보자	749,932	없음	없음	
배우자	2,988	없음	없음	
직계존속	신고거부			
직계비속	17,613	없음	없음	

4. 소명서

없음

존경하는 부산진 구민 여러분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대통령,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문제”라는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의 약속대로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합니다.

“거지 같아요” “너무 장사가 안돼요”라는 국민들의 절규를 들은 대통령은
며칠 뒤 영화인들을 초청해 짜파구리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사진 속 영부인이 어찌나 파안대소 하는지
국민들은 대통령이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이게 나라냐?”

적폐를 청산한다더니 경제발전을 완전히 청산해 버렸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하고 나라 곳간은 바닥났지만, 이제 남은 건
세금주도 성장밖에 없으니 60조 땀 빔을 냈습니다.
그 돈, 모두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문재인 심판해야 합니다.

저들이 행정부, 사법부, 지방권력까지 모두 장악한 마당에
국회까지 장악하는 상황은 악몽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문재인 심판의 상징과도 같은,
부산 여당 최다선 현역의원이 있는,
부산진구 갑에 저를 호출했고
저는 불리한 여건 속으로 기꺼이 뛰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뭉치고 바꾸고 심판하자는 데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문재인 심판해야 합니다.

부산진구(갑) 국회의원후보 서병수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 **서병수가 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

딸 대학입시를 위해
엄마가 표창장 위조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아들도 변호사 사무실 인턴을 했는데
로펌 직원은 그런 학생 본 적 없다 하고,
로펌 대표는 아빠가 일하는 청와대 비서관이 됩니다.
아빠찬스, 엄마찬스라는 말이 표준어가 될 지경입니다.
소시민들은 상상도 못해본 **좌파 특권층**의 풍경입니다.
우리 아이가 알바라도 하겠다고 바빠 나가는 모습에
마음은 또 무너져 내립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불공정

표창장 위조로 기소된 사모님은 부지런도 합니다.
남편이 청와대 수석 되자마자 사모펀드에 투자했는데
10개가 넘는 죄목으로 구속까지 됐습니다.
부동산 올인했다 지탄받고 도망친 청와대 대변인,
그자에게 대통령은 갈 곳은 있냐고 물었다는데,
조국수호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조국 잡은 윤석열에게 공수처로 복수할 기세입니다.
유권무죄(有權無罪), **좌파 특권층**이 꿈꾸는 세상인가 봅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경제

“경기가 거지 같다” 상인의 하소연은 낚두리가 아닙니다.
경제성장률 10년 중 최저, 설비투자 10년 중 최대감소
산업생산 19년 중 최악, 제조업가동률 21년 중 최악
그런데 대통령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어디일까 소름 돋는데, 우한코로나까지 덮쳤습니다.
하는 건 세금 탕진뿐이라 나라 곳간은 바닥났고
올해 예산은 60조원 빚으로 충당했습니다.
모두 내가 낼 세금이고, 자식들이 갚을 빚입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안전과 생명

우한코로나가 창궐하니 중국인 좀 막아달라 애원했건만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는 대통령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문제고,
의료진의 마스크 부족은 ‘병원의 재고 욕심’입니다.
국민안전보다 중국정부의 심기가 더욱 중요한 듯합니다.
억울한 죽음은 이미 백 명을 넘어 계속 늘어나겠지만
세월호 유가족과 단식까지 하던 대통령은
코로나 유가족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대한민국, 서병수가 살리겠습니다

보수혁신

헌신

2년 전부터 작은 연구소를 만들어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비전을 연구하고 부족했던 공부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헌신과 책임으로 무장한 젊은 보수들을 돕겠다 일찌감치 피력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데 서병수가 앞장서라는 당의 요구,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586세대 운동권 정치가 망치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라는 명령,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늘 그래왔듯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혁신

진보주의자들은 ‘혁신’을 전유물인 양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진보는 어떠한가요? 그들은 1980년대부터 주목을 받았고, 30대 나이에 권력에 접근했으며, 그것을 좌파 이념으로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는, 혁신을 거부하는 수구좌파 586세력일 뿐입니다. 보수의 혁신은 다릅니다. GDP 세계 11위에 오른 경제혁신, IT 초강대국이 된 기술혁신, 한류를 일으킨 문화혁신, “힘있는 5선 의원이 되어 서병수가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안보

북핵의 목표는 오로지 대한민국입니다. 핵무기를 없애달라는 것이 국민의 절규인데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기념사진에만 관심있는 듯합니다. 줄 거 다 주고 북한에게 받은 것은 늘 부끄러운 면박입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하지 말라” 백두혈통의 안색만 살피며 김정은과의 쇼타임 기획에만 골몰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무능 “힘있는 5선 의원이 되어 서병수가 바로 잡겠습니다.”

“釜山” 그리고 자존심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나라가 남침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피난수도로 나라를 지켜냈던 부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경제발전의 엔진과도 같았던 부산입니다. 지난 세 번의 좌파정권은 유독 부산의 공적을 집요하게도 깎아내리며 국가발전에 헌신한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렸고 부산의 산업을 고사시켜왔습니다. 국가발전에 앞장선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되찾고 무너진 부산 경제를 되살리는 일 “부산시장 출신 5선 의원이 되어 서병수가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심장,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가 부울경 초광역 **글로벌 기업도시**로 재탄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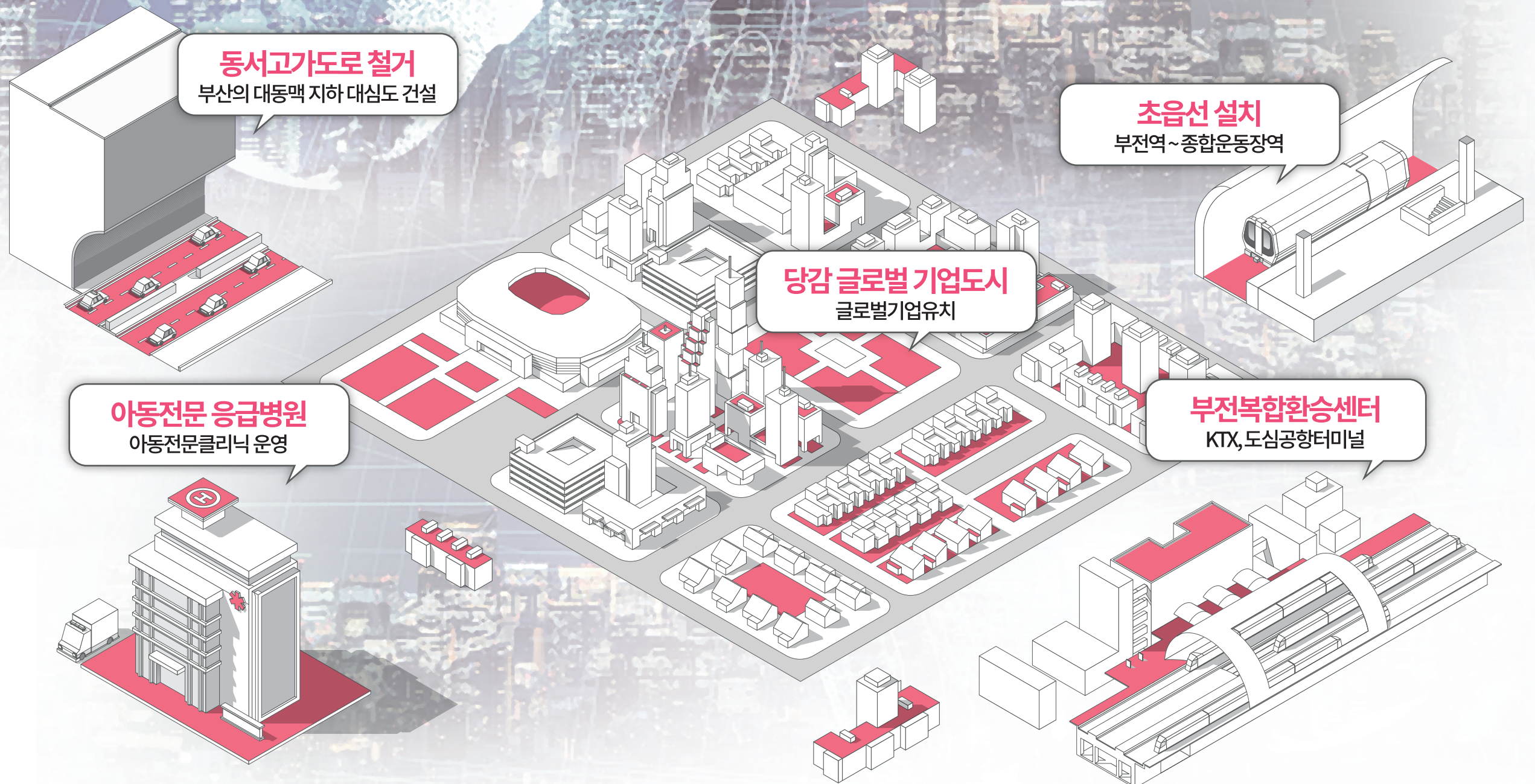
동서고가도로 철거
부산의 대동맥 지하대심도 건설

초음선 설치
부전역~종합운동장역

당감 글로벌 기업도시
글로벌기업유치

아동전문 응급병원
아동전문클리닉 운영

부전복합환승센터
KTX,도심공항터미널



서병수가 만들어 갈 부산진구의 모습

여러분이 함께 체크해 주세요

무너진 대한민국 재건!

여기에
체크해보세요



공정개혁

- 위험적 공수처 폐지
- 검찰청 인사·예산 독립
- KBS 공영방송 정상화
- 태양광 게이트 비리 척결



자유경제

- 재정건전화법으로 미래 세대 빚더미 폭탄 제거
- 포퓰리즘 국가예산 구조조정
-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편
-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장 개혁



국민안전

- 감염병 안심 사회
- 교통사고·범죄로부터 안전한 거리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나라
-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 장애인 권익보호·차별방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공정교육

- 자사고·외고·국제고 원상회복
- 일반고 경쟁력 강화
- 학교 정치화 방지
- 부모찬스 없는 공정입시

서면생활권

(부전1,부암1동)

- 복합행정타운(보건소·세무서 이전)
- 시민공원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조속추진
- 시민공원~송상현광장 도보길 연결
- 젊은 일자리 창업주택 지원 및 청년센터 설립
- 부암고가교, 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 동문힐·쌍용아파트 앞 도로증설
- 부전1동 반려동물 놀이터 및 복지시설
- 동일파크스위트 1,3차 아파트 앞 도로정비

당감생활권

(당감,부암3동)

- 마산선 복선전철 당감역 설치
- 백양도서관 유치
- 당감, 동평상가시장 일대 현대화
- 소규모 주차장 보급
- 당감동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추진
- 종합체육문화센터 건립
- 복합노인복지회관 건립

**지역별
맞춤공약**

양정생활권

(양정1,2동)

- 양정복합도서관
- 양정2동 다복동주민센터 리모델링
- 다행복학교 건립
- 양정시장 현대화
- 우리동네 안심거리
- 우리아이 안심보행

초읍생활권

(연지,초읍동)

- 새싹로·성지로 버스도착알림기 조기설치
- 초연생태공원 풋살·파크골프 개설팀
- 성지곡 먹거리타운 특화거리 조성
- 어린이대공원 재정비 사업
- 어르신 효(孝)프로젝트
- 초읍1 주택재개발 조속추진
- 만덕3터널 우회도로 건설